

##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

조 금 호

서강대학교

고등학생(연구 1)과 대학생(연구 2) 참가자들을 개인중심성향자와 집단중심성향자로 나누고, 능력·개체성·배려성 특성에서 동일 집단 내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추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개인주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능력과 개체성 특성에서는 집단중심성향자보다 개인중심성향자가 자기의 독특성을 허구적으로 과대 지각하며, 집단주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배려성 특성에서는 개인중심성향자보다 집단중심성향자가 자기의 독특성을 과대 지각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이 개인주의 문화의 특징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Heine & Lehman, 1997; Markus & Kitayama, 1991b)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은 어느 문화에서나 해당 문화의 문화적 명제와 일치하는 특성의 판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 일치 특성에 대한 우월성 가설과 정교화 가설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문화에 따른 자기존중감의 근원의 차이가 유발된다는 사실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문화성향, 허구적 독특성, 문화 일치 특성, 자기존중감, 문화구성주의, 우월성 가설, 정교화 가설

관계중심적 인간관이 지배적인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를 개인 간의 관계 또는 이러한 관계의 원형인 가족과 같은 일차집단이라고 보지만, 개체중심적 인간관이 지배적인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상황이나 타인과 분리된 독립적인 개인을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로 본다. 그리하여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상황의존적인 관계 속의 존재로 파악하며, 따라서 이러한 관계 속에 내포된 역할과 의무를 사회 행위의 원동력으로 보므로써 개인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타인에의 관심과 배려 및 조화의 추구를 중요한 대인평가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상황유리적인 독

립적인 존재로 파악하며, 따라서 이러한 독립적인 개인의 내적 속성(욕구·능력·선호·성향 등)을 사회 행위의 원동력으로 보므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독특성의 추구를 중요한 대인평가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조금호, 1993, 1996, 1997, 1999, 2000, 2001; 조금호·김소연, 1998; 조금호·김은진, 2001; 조금호·김지용, 2001; 조금호·명정완, 2001; 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Heine & Lehman, 1995, 1997; 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Kitayama, Markus, & Lieberman, 1995; 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Kunda, 2000; Markus &

\* 이 논문의 연구 1의 자료는 김지용(2002)이 서강대학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의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 삽입하여 수집하였다. 본 논문의 자료 처리 과정에서 이현남박사와 한양대학교 대학원의 박동필박사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초고의 심사 과정에서 세분의 심사위원은 많은 귀중한 지적과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의견과 관점의 차이 및 필자의 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들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조언은 본고가 초고보다 훨씬 짜임새가 있도록 해주었다. 이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Kitayama, 1991a, b, 1994a, b; Markus, Mullally, & Kitayama, 1997; Matsumoto, 2000; Triandis, 1989, 1990, 1995 등).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두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주의 초점의 차이를 유발한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존성을 강조하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집단원들과의 조화의 달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따라서 개인은 타인들에게 단결심·겸양·양보심·동정심과 같은 배려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려고 하며, 이러한 특성의 신장에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Bond & Forgas, 1984; Bond & Hwang, 1986; Markus & Kitayama, 1991a, b; Triandis, 1989, 1990; Yang, 1986).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독립적인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립성(self-reliance)의 달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따라서 개인은 타인들에게 자기가 탁월한 능력과 독립적 성향을 보유한 독특한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Markus & Kitayama, 1991a, b; Miller, 1984; Miller & Bersoff, 1992; Sampson, 1977, 1989; Triandis, 1989, 1990).

그 결과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누구인가?”의 학습(집단 내에서의 위치 확인 및 내집단원과의 조화성 추구)에 사회화의 강조점이 주어지고, 집단과의 관계에 의해 정체감이 정의되므로 사회적 정체감의 형성이 일차적인 과제가 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학습(능력 확인 및 독특성 추구)에 사회화의 강조점이 주어지고, 개인적인 성취(소유물·경험·업적·능력 등)에 의해 정체감이 정의되므로 개인적 정체감의 형성이 일차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다(Fiske et al., 1998; Heine et al., 1999; Kitayama et al., 1995, 1997; Markus & Kitayama, 1991a, b; Triandis, 1990; Weldon, 1984).

#### 문화와 허구적 독특성 지각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정적 자기 평가(positive self-regard)는 자기 독특성의 확인 및 인식과 깊은 관련을 맺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자들은 정적인 자기관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정적인 성향의 독특성을 사실 이상으로 과

장하여 지각하는 허구적 독특성 지각(false uniqueness perception)의 경향(Marks, 1984; Mullen & Riordan, 1988; Snyder & Fromkin, 1980; Tesser, 1988)을 강하게 보일 것이다.

Myers(1987)는 미국 대학생들 중 자기의 지도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70%에 이르고, 60%의 학생들은 남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 상위 10% 이내에 든다고 보고 있으며, 심지어 자기의 사교성이 상위 1% 이내에 든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25%에 이르는 사실을 보고하여, 이러한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이 개인주의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임을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은 비현실적으로 정적인 자기 평가의 경향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과장된 통제력 지각 및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와 함께 서구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의 일종(Taylor & Brown, 1988)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자기고양 편향(self-enhancing bias)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Brown, 1986; Diener & Diener 1995; Heine et al., 1995, 1999; Kernis, 1984; Kitayama & Markus, 1995; Kitayama et al., 1997), 자기존중감(self-esteem)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Kunda, 2000; Matsumoto, 2000, Tesser, 1988).

이러한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은 개인주의 사회의 특징인 것으로 밝혀져 왔다. Markus와 Kitayama(1991b)는 일본과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능력(지적 능력·기억력·운동 능력), 독립적 성향(독립성·자기 의견 고수 성향) 및 상호존적 성향(동정심·따뜻한 마음씨)의 특성들을 제시하고, “같은 대학의 학생들 중 이 각각의 특성에서 자기보다 우수한 학생의 비율”을 추정해 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학생들은 세 특성 모두에서 강한 허구적 독특성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에 비해(각각 41.5%, 33.5%, 28.0%), 일본의 학생들은 세 특성 모두에서 평균적인 판단 경향(각각 53.5%, 50.0%, 44.5%)을 보임을 발견하였다.<sup>1)</sup>

1)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같은 배경을 가진 집단의 학생들 중에서 무선적으로 선별하여 여러 특성에서 자기의 상대적 위치를 추정하도록 했을 때,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추정치는 50%일 것이므로, 이보다 낮은 추정치를 보일수록 자기를 허구적으로 독특하게 지각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제한다. 물론 각 응답자 개개인에게 있어서, 특히 우수한 능력

또한 Heine와 Lehman(1997)은 일본과 캐나다 대학생들(아시아계 캐나다인과 유럽계 캐나다인)에게 독립적 성향(매력적이다·재미있다·독립적이다·자신감있다·지적이다)과 상호의존적 성향(협조적이다·헌신적이다·배려심이 깊다·열심히 노력한다·믿음직하다)을 제시해 주고, “같은 연령층의 동성들 중 이 각각의 특성에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의 비율”을 추정해 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유럽계 캐나다인은 강한 허구적 독특성 효과(각각 27.5%와 23.7%)를 보이고 있음에 비해, 일본 학생들은 평균적인 반응 경향(각각 47.3%와 43.9%)을 보이며, 아시아계 캐나다인은 그 중간(각각 36.3%와 27.4%)에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의 독특성을 과장하여 지각하는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은 개인주의 사회의 특징일 뿐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 문화와 자기 평가 기준의 차이

이러한 결과들에서 주목할 것은 비록 미국이나 (Markus & Kitayama, 1991b) 캐나다 대학생들(Heine & Lehman, 1997)에 비해 크게 약하기는 하지만, 일본의 학생들도 소속 문화의 집단주의적 가치를 반영하는 상호의존적 성향의 평가에서는 이론적 기대치인 50%에 못미치는(44.5%와 43.9%) 어느 정도의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자기에 대한 정적 평가는 실제로 소속 사회의 문화적 명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Markus & Kitayama, 1991b, p. 38).

이렇게 문화적 명제의 충족이 자기존중감의 근거라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예: Fiske

et al., 1998; Heine et al., 1999; Kitayama et al., 1995, 1997; Kunda, 2000;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a, b; Matsumoto, 2000 등). 이들에 따르면, 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사회의 문화적 명제는 자율성과 개별성의 추구이다. 따라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내적 욕구, 권리 및 능력의 표출과 사회적 압력에 대한 저항의 노력을 통해 개인적 역량과 주도성(agency)이 체험되므로, 통제(control)란 결국 개별성과 자율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회 상황이나 외적 제약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독특성과 수월성, 자기 표현의 유능성 및 외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자기존중감의 근거가 된다.

이에 비해 개인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문화적 명제는 상호연결성, 사회 통합 및 대인간 조화의 추구이다. 따라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에의 민감성, 상황의 필요와 요구에의 적응 및 자기억제와 조절의 노력을 통해 개인적 역량과 주도성이 체험되므로, 통제란 결국 상호의존성과 연결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적 욕구와 목표 및 사적 감정 등 내적 속성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기 억제와 상황적응성 및 대인관계에서의 조화의 유지가 자기존중감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James(1890) 이래 심리학자들은 자기에 대해 정적인 견해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동기의 하나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으며”(Matsumoto, 2000, p. 63), Brown(1998) 및 Heine 등(1999)도 이러한 정적 자기 평가를 위한 욕구가 인간의 보편적인 동기임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자기존중감의 추구 욕구가 보편적인 인간의 동기이고, 자기존중감의 근거가 문화적 명제의 달성에 달려 있다면, 문화에 따라 정적 자기 평가의 통로가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 문화에 따른 중시 특성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자기에 대한 정적 평가인 자기존중감은 자기의 탁월성에 대한 정적 평가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Brown, 1998; Heine et al., 1999; Kunda, 2000; Maehr & Nicholls, 1980;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a, b; Matsumoto, 2000). 따라서 자기존중감은 해당 문화에서 중시하는 성향 또는 독특성의 인식을 바탕으로 할

이나 특성의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독특성 과대 지각 경향이 주관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배경의 많은 학생들(예: 우리 학교 학생들)과 비교하여 자기의 상대적 위치를 추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무선적으로 선발된 응답자 집단의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추정치는 50%일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추정치가 50%보다 낮아질수록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이 높아지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Heine & Lehman, 1997; Kunda, 2000; Markus & Kitayama, 1991b; Matsumoto, 2000).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허구적 독특성의 평가는 앞에서 본 Markus와 Kitayama(1991b) 및 Heine와 Lehman(1997)의 결과와는 달리 두 문화에서 중시하는 특성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즉, 개인주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여러 능력과 독립적 성향에 대한 허구적 독특성의 지각 경향은 집단주의 사회보다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더 강하겠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상호의존적 성향에 대한 허구적 독특성의 지각 경향은 개인주의 사회보다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조공호·명정완(2001)의 연구에서 대체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연구 1)을 개인중심성향자(135명)와 집단중심성향자(137명)로 나누고, 이들에게 3개씩의 능력, 독립적 성향(개체성 특성), 상호의존적 성향(배려성 특성)을 제시해 준 다음, “같은 학교 학생들 중 이들 각각의 특성에서 자기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추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능력과 개체성 특성에서는 개인중심성향자(각각 36.0%와 32.0%)가 집단중심성향자(각각 45.9%와 46.9%)보다 더 강한 허구적 독특성 효과(각각  $t=4.20$ ,  $t=5.60$ , 모두  $p<.001$ )를 보였으나, 배려성 특성에서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 $t < 1$ ) 집단중심성향자가 추정한 허구적 독특성(35.5%)이 개인중심성향자의 그것(38.1%)보다 더 컸다.

이 연구(조공호·명정완, 2001)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대학생 참가자들(연구 2)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학생들은 능력의 경우에는 개인중심성향자(39명)와 집단중심성향자(44명)의 허구적 독특성 효과(각각 39.9%와 39.1%)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 $t < 1$ ). 그러나 개체성 특성에 대한 허구적 독특성 효

과는 개인중심성향자(33.2%)가 집단중심성향자(38.9%)보다 강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t=1.41$ ,  $p<.10$ ), 배려성 특성에서는 반대로 집단중심성향자(23.3%)가 개인중심성향자(36.2%)보다 유의미하게( $t=3.40$ ,  $p<.001$ ) 강한 허구적 독특성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의 수월성 또는 독특성을 과대 지각하는 허구적 독특성 효과는 개인주의자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문화적 명제에 기초한 중시 특성에 따라 문화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조공호·명정완, 2001)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연구 1)과 대학생(연구 2)에게서 재검해 보므로써, 이러한 추론의 경험적 타당성을 확증해 보려 하였다.

선행 연구(조공호·명정완, 2001)는 연구 참가자들의 문화성향에 따라 자의식 유형(사적 자의식·공적 자의식: Fenniestein, Scheier, & Buss, 1975)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검증하고, 이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화차 관련 요인을 확인하는 데에 기본 목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는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의 문화성향(개인중심성향자·집단중심성향자)×특성유형(능력·개체성·배려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찾아 놓고도 이의 의미를 천착하지 못하고, 다만 능력·개체성·배려성에 속하는 9개 특성(각각 3개씩)을 모두 통합한 전체적인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개인중심성향자와 사적 자의식 유형자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당시에 필자도 허구적 독특성 효과는 개인주의 문화의 특징일 뿐이라는 이 분야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예: Heine & Lehman, 1997; Kunda, 2000; Markus & Kitayama, 1991b; Matsumoto, 2000 등)를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종류가 다른 여러 특성들을 모두 묶은 전반적인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이 아니라, 본 논문에서와 같이 이 경향의 문화성향×특성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가지는 이론적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이 문화 비교 연구들의 배경이 되고 있는 문화구성주의(cultural constructionism: 사회 전반적인 문화 체계와 개인의 심성 체계가 상호 구성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견해)의 기본 입장(예: Fiske et al., 1998; Gergen & Davis,

2) 문화 수준에서의 집단주의-개인주의의 양극 차원이 한 개인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Triandis (1989, 1990, 1994, 1995)와 그 일파들(Bontempo, Lobel, & Triandis, 1990;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Triandis & Gelfand, 1998;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 Triandis, McCusker, & Hui, 1990)의 입장에 근거하여, Singelis, Triandis, Bhawuk과 Gelfand(1995)는 한 개인이 가진 두 문화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에서 집단중심성향보다 개인중심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개인중심성향자이고, 그 반대로 개인중심성향보다 집단중심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집단중심성향자이다.

1985; Gergen & Gergen, 1988; Harré, 1988; Heine & Lehman, 1997; Heine et al., 1999; Kitayama et al., 1995, 1997; Markus & Kitayama, 1994a, b; Nightingale & Cromby, 1999 등)과 합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이 상호작용 효과의 재검을 통한 허구적 독특성 효과의 문화적 구속 조건(cultural boundary condition)의 차이 확인이라는 기본 목적과 함께 본 연구 수행의 배경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각각 다른 대상으로 삼아 연구 1과 연구 2로 나눈 것은 선행 연구(조금호·김은진, 2001; 조금호·명정완, 2001)의 결과, 고등학생들은 집단중심성향이 개인중심성향보다 높은 반면, 대학생들은 개인중심성향이 집단중심성향보다 높은 것으로 검출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을 묶어 분석할 경우, 집단중심성향자에는 고등학생이 압도적으로 많고, 개인중심성향자에는 대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연령(학교 수준) 변인이 체계적인 오염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 연구 1

### 방법

#### 연구 참가자

서울에 있는 6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총 595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들 학교의 소재지는 강남지역 2개교, 강동지역 2개교, 그리고 성북지역 2개교이었다. 이는 학부모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상·중·하 집단에 고루 분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들 중 설문지에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았거나, 한 문항에 대해 중복 응답을 한 경우 등 부적절하게 설문지를 작성한 54명을 제외한 총 541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남학생은 207명(38.3%)이었고, 여학생은 334명(61.7%)이었다.

####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2쪽의 문화성향 척도와 1쪽의 허구적 독특성 측정 척도가 사용되었다. 성별을 기술하게 되어

있는 연구 전체 소개문(평소 생활 태도와 정서 경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연구라고 소개한 다음, 개인의 응답은 전체적인 통계 처리의 자료로만 사용될 뿐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는 8줄 짜리 글)을 제일 첫 장에 넣어, 모두 3장으로 소책자를 구성하였다.

**문화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개인중심성-집단중심성의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Singelis 등(1995)이 제작한 INDCOL 척도를 김기범(1996) 및 Kim과 Kim(1997)이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을 다시 수직/수평(vertical/horizontal)으로 나누어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수직적 유형은 불평등을 수용하고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반면, 수평적 유형은 평등과 동등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수직적 개인주의자(VI)는 경쟁적이며 남들을 이기는 것을 중시하고, 수평적 개인주의자(HI)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반면 수직적 집단주의자(VC)는 집단과 가족을 개인보다 우선시하고, 수평적 집단주의자(HC)는 평등한 동료들 사이의 동료애와 협동을 중시한다(Triandis, 1995; Triandis & Gelfand, 1998). Singelis 등(1995)의 척도는 이 네 하위 유형을 측정하는 Likert형 9점 척도(1: 전적으로 반대, 5: 중간, 9: 전적으로 찬성)의 태도 문항 8개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기범(1996) 및 Kim과 Kim(1997)은 우리나라 대학생 326명에게 이 척도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Singelis 등(1995)의 것과 거의 유사한 요인 구조를 얻어 내었으며, Cronbach  $\alpha$ 로 측정된 신뢰도는 VI = .71, HI = .81, VC = .68, HC = .7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sup>3)</sup> 또한 이 척도는 우리 의식 설문지와와의 상관 분석과 같

3) 이러한 신뢰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얻어진 것이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참가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Cronbach  $\alpha$ 를 계산해 보면, VI = .70, HI = .75, VC = .69, HC = .75로 대학생에게서 얻어진 그것과 거의 유사하였으며, 앞선 연구(조금호·김은진, 2001, 주 4; 조금호·명정완, 2001, 주 8 참조)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얻은 신뢰도와 대체로 동등하였다.

등 상황에서 중재 유형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존 및 예언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김기범, 1996; Kim & Kim, 1997).

**허구적 독특성 척도** 연구 참가자들이 자신을 얼마나 독특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해 보기 위하여 능력(지적 능력 · 기억력 · 운동 능력), 개인주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개체성 특성(독립성 · 자립성 · 자기주장성), 집단주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배려성 특성(동정심 · 따뜻한 마음씨 · 타인 사정 이해성) 각각을 제시해 주고, 이러한 각각의 항목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 중 몇 %가 나 자신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되는지”를 괄호 속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절 차**

선정된 학교의 해당 학급 담임 교사들에게 설문지에 대한 소개와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린 다음, 각 학교에서 담임 교사의 지도 아래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결 과**

**문화 성향 집단 선별**

각 참가자에게서 얻은 문화성향 척도의 결과를 VI, HI, VC, HC 별로 평균치로 계산하여, 각 피험자별로 VI와 HI의 점수를 합한 평균치를 개인중심성향 점수로 삼고, VC와 HC의 점수를 합한 평균치를 집단중심성향 점수로 삼았다. 따라서 각 척도는 모두 1~9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화성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 참가자들에게서 얻은 개인중심성향과 집단중심성향 사이의 상관은  $r=.04(p > .05)$ 로, 이 두 문화성향이 상호 독립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의 근본 목적은 두 문화성향(개인중심성향과 집단중심성향) 집단의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의 차이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각 응답자별 개인중심성향과 집단중심성향의 점수를 바탕으로, 조국호와 김소연(1998)의 중앙치 분리법에 따라, 전체 피험자의 개인중심성향 분포와 집단중심성향

분포를 각각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하여 고 · 저 집단으로 나누고, 이 중 “개인중심성 고-집단중심성 저”인 집단을 개인중심성향의 집단으로, “개인중심성 저-집단중심성 고”인 집단을 집단중심성향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전형적인 개인중심성향자는 118명(21.8%), 집단중심성향자는 121명(22.3%)으로 판별되었다. 연구의 결과 분석에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의 경우에는 전체 참가자(541명)의 자료를, 문화성향 집단 간의 분석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정된 239명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문화 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응답자들이 세 가지씩의 능력 · 개체성 특성 · 배려성 특성 각각에 대해 추정한 독특성 지각 점수를 기초로 이 세 영역의 평균 독특성 지각 점수 및 전체적인 평균 독특성 지각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자료로 하여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추정한 비율이 낮아서 50%에서 멀어질수록 스스로를 고약적으로 지각하여 자기의 독특성을 허구적으로 과장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며, 50%에 가까울수록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이 사라지고 평균적으로 자기를 지각함을 나타낸다(Heine & Lehman, 1997; Kunda, 2000; Markus & Kitayama, 1991b; Matsumoto, 2000).

**상관분석** 전체 참가자의 두 문화성향 점수와 세 특성 영역 및 이 세 특성 영역을 합한 전체 독특성 추정치 사이의 상관을 내어 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문화성향과 독특성 지각 경향의 상관과 그 차이 (n=541)

	능력	개체성	배려성	전체
개인중심성향	-.28***	-.33***	.08	-.22***
집단중심성향	.05	.04	-.17***	-.04
차이(t)	-5.77***	-6.57***	4.26***	-3.09***

\*\*\*  $p < .001$

이 표에서 보면, 개인주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능력과 개체성 특성 영역의 독특성 추정치는 개인중심성향과 유의미한 역상관을 보이는데 반해, 집단중심성향과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정상관을 보이

고 있다. 이 두 영역에서의 독특성 추정치의 두 문화성향 점수와의 상관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 $p < .001$ )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응답자들의 개인중심성향이 클수록 능력과 개체성 특성 영역에서 자기의 독특성을 허구적으로 과대 지각함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그러나 집단주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배려성 특성 영역에서의 독특성 추정치는 집단중심성향과 유의미한 역상관을 보임에 반해, 개인중심성향과는 약간의 정상관을 보이고 있다. 배려성 영역의 독특성 추정치와 이 두 문화성향 사이의 상관은 유의미한 차이( $p < .001$ )가 있는 것이다. 이는 배려성 영역에서는 응답자들의 집단중심성향이 클수록 자기의 독특성을 과대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이 어느 한 문화성향만의 특징이 아니라, 문화성향과 중시 특성의 일치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문화성향 집단 간의 비교** 선발된 두 문화성향 집단이 응답한 영역별 독특성 지각 경향의 평균치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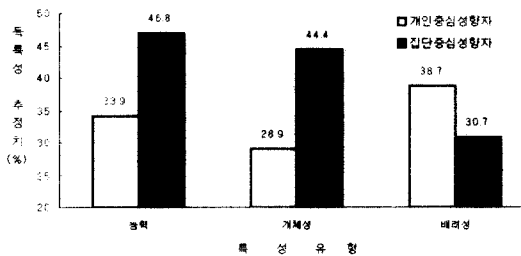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성향·특성유형 별 독특성 지각 경향

그림에서 보듯이, 능력과 개체성 특성에서 집단중심성향자들은 거의 50%에 가까운 추정치를 보여 허구적 독특성 효과를 거의 보이지 않음에 비해,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심한 허구적 독특성 효과를 보이고 있다. 두 문화성향 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이다: 능력,  $t(237) = -5.28, p < .001$ ; 개체성,  $t = -6.05, p < .001$ . 이에 비해 배려성 특성에서는 두 집단 모두 허구적 독특성 효과를 보이지만, 이러한 경향은

집단중심성향자의 경우에 더 강하다,  $t = 2.86, p < .01$ .

문화성향 일치 특성(개인주의의 경우에는 능력과 개체성 특성; 집단주의의 경우에는 배려성 특성)에 대한 이상과 같은 허구적 독특성 효과는 문화성향(2) × 특성 유형(3)의 변량분석의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이 분석에서는 특성유형의 주효과와 문화성향의 주효과가 검출되고 있다: 특성유형,  $F(2, 474) = 9.07, p < .001$ ; 문화성향,  $F(1, 237) = 10.49, p < .001$ . 즉, 특성유형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능력(40.5%)보다는 개체성(36.8%)이나 배려성(34.6%)의 허구적 독특성 효과가 더 강하다. 이는 대체로 지적 능력·기억력·운동 능력 등의 능력의 경우에는 객관적 기준이 있지만, 개체성이나 배려성 같은 성격 특성의 경우에는 객관적 기준이 없으므로, 문화 일치 특성에 대한 허구적 독특성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개인중심성향자의 독특성 지각 경향(33.9%)이 집단중심성향자의 그것(40.6%)보다 더 크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성향과 특성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F(2, 474) = 45.02, p < .001$ . 이는 허구적 독특성 효과는 문화 일치 특성의 경우에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의미하는 결과인 것이다.

**문화성향이 각 특성 독특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개인중심성향자는 능력과 개체성 특성의 판단에서 자기의 우수성을 과대 지각하고, 집단중심성향자는 배려성 특성의 판단에서 자

4) 개인중심성향자의 허구적 독특성 효과가 집단중심성향자의 그것보다 큰 이러한 결과는 앞의 표 1에서 특성 전체의 독특성 추정치와 개인중심성향 간에는 강한 역상관이 나타나고 있지만, 집단중심성향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는 사실과도 잘 부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개인주의의 문화 일치 특성은 능력과 개체성의 두 가지이었고, 집단주의의 문화 일치 특성은 배려성의 한 가지이었다는 사실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는 능력을 제외하고 개체성과 일치성의 성격 특성만으로 변량분석을 해 보면, 문화성향 × 특성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더욱 두드러지지만,  $F(1, 237) = 59.80, p < .001$ , 특성유형( $F = 1.68$ )과 문화성향( $F = 2.79$ )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p > .05$ )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허구적 독특성 효과가 개인주의 문화의 특징으로 밝혀진 까닭은 이들 연구에서 개인주의 일치 특성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이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기의 우수성을 과대 지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세 가지 특성 각각을 기준 변인으로 하고, 문화성향을 예언 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표 2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표 2. 두 문화성향이 각 특성유형의 독특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n = 541$ )

	능력		개체성		배려성	
	$\beta$	$t$	$\beta$	$t$	$\beta$	$t$
개인중심성향	.29	-6.21***	.33	-7.29***	.13	2.70**
집단중심성향	.08	1.92*	.04	.82	-.14	-3.00**
$R^2$	.10***		.13***		.07***	

\*  $p < .05$ , \*\*  $p < .01$ , \*\*\*  $p < .001$

이 표에서 보면, 능력과 개체성 특성의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은 개인중심성향에 의해 유의미하게 예측되고, 배려성 특성의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은 집단중심성향에 의해 유의미하게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능력과 개체성 영역에서는 개인중심성향이 높을수록 자기보다 우수한 타인의 비율을 낮게 추정하여 허구적 독특성 효과가 커지지만, 배려성 영역에서는 집단중심성향이 높을수록 자기보다 우수한 타인의 비율을 낮게 추정하여 허구적 독특성 효과가 커지는 것이다.

이에 비해 능력의 경우와 배려성의 경우 각각 집단중심성향과 개인중심성향은 허구적 독특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능력 영역에서는 집단중심성향이 높을수록 자기보다 우수한 타인의 비율을 높게 추정하여 허구적 독특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배려성 영역에서는 개인중심성향이 높을수록 자기보다 우수한 타인의 비율을 높게 추정하여 역시 허구적 독특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 연구 2

### 방법

#### 연구 참가자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141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남학생은 78명

(55.3%)이고, 여학생은 63명(44.7%)이었다.

### 측정 도구

연구 1의 것과 같았다.

### 절차

실험은 30~70여명의 세 강의 분반에서 집단적으로 실시되었다. 실험자가 강의실에 입실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려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정답이나 오답은 없으며, 응답 결과는 전체적으로 통계 처리될 뿐, 개인의 응답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란다”는 요지의 설명을 한 다음, 설문지를 배부하고, 지시문에 따라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 결과

#### 문화성향 집단 선별

각 응답자별로 개인중심성향 점수와 집단중심성향 점수를 계산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r = .09$  ( $p > .05$ )로, 이 두 문화성향은 고등학생 집단(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호 독립적이었다. 이 두 문화성향의 중앙치 분리법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눈 결과, “개인중심성향 고-집단중심성향 저”인 개인중심성향자가 33명(23.4%), “개인중심성향 저-집단중심성향 고”인 집단중심성향자가 35명(24.8%)인 것으로 판별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성향 집단 간의 분석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68명의 자료를,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의 경우는 전체 참가자(141명)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상관분석** 전체 참가자의 두 문화성향 점수와 세 특성 영역 및 이 세 영역을 합한 전체 독특성 추정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내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대학생 참가자들도 고등학생(표 1)과 마찬가지로 반응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개인주의 일치 특성인 능력과 개체성 영역의 독특성 추정치는 개인중심성향과 유의미한 역상관을 보이지만, 집단주의 일



치 특성인 배려성 영역의 독특성 추정치는 집단중심성향과 유의미한 역상관을 보이고 있다. 각 특성 영역의 독특성 추정치와 두 문화성향의 이러한 상관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 문화성향과 독특성 지각 경향의 상관과 그 차이 (n = 141)

	능력	개체성	배려성	전체
개인중심성향	.36***	.44***	-.06	-.38***
집단중심성향	-.05	-.00	-.39***	-.18*
차이(t)	-2.89***	-4.21***	3.13***	-1.91*

\*  $p < .05$ , \*\*\*  $p < .001$

문화성향 집단 간의 비교 선발된 두 문화성향 집단 이 능력·개체성·배려성 영역에서 추정된 독특성 지각 경향의 평균치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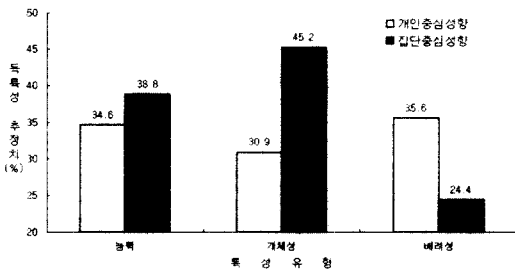


그림 2. 문화성향·특성유형별 독특성 지각 경향

이 그림에서 보듯이, 대학생 참가자들의 반응도 고등학생(그림 1)의 그것과 유사하다. 즉, 개체성 영역에서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아주 강한 허구적 독특성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집단중심성향자들에게서는 독특성 지각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t(66)=3.27, p<.01$ . 또한 배려성 영역에서는 두 성향 집단 모두 허구적 독특성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집단중심성향자의 경우가 더 강하다,  $t=2.76, p<.01$ .

그러나 능력 영역에서는 두 성향 집단 모두 별 차이 없이( $t < 1$ ) 허구적 독특성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생 집단(연구 1)에서와는 달리 대학생 집단에서 지적 능력·기억력·운동 능력 등 제반 개인적 능력의 측면

에서 집단중심성향자도 개인중심성향자와 같이 50%에 훨씬 못미치는 독특성 과대 지각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의외이다. 이는 고등학생들은 평준화 교육 정책으로 인해 능력의 개인차가 심한 학생들이 한 학교에 함께 있지만, 대학생들은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 입학한 학생들이므로 전반적으로 자기 능력에의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 까닭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능력 영역에서의 고등학생 집단과 대학생 집단의 이러한 차이는 선행 연구(조공호·명정완, 2001)에서도 밝혀졌던 결과이다.5)

문화성향 일치 특성에 대한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은 문화성향(2)×특성유형(3)의 변량분석 결과,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6)  $F(2, 132)=14.22, p < .001$ .

### 문화성향이 각 특성 독특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참가자에게서도 고등학생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성향 집단 별로 문화 일치 특성에서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세 특성 각각을 기준 변인으로 하고, 문화성향을 예언 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표 4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5) 본고와 선행 연구(조공호·명정완, 2001)의 대학생 참가자들은 서강대학교 학생들로, 해당 학년의 수학 능력 적성 고사의 점수 분포에서 상위 2~3% 이내에 드는 우수한 학생들이었다. 이렇게 지적 차원에서 좁은 범위 내의 고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학생 집단의 경우, 능력 영역에서 문화성향 집단 간에 허구적 독특성 효과를 사라지게 만든 원인이었을 것이다.

6) 이 분석에서 문화성향의 주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 < 1$ , 특성유형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  $F(2, 132)=6.46, p<.001$ . 즉, 전체적으로 개인중심성향자(33.7%)와 집단중심성향자(36.1%)의 독특성 지각 경향은 별 차이가 없었으나, 배려성 특성(29.8%)의 독특성 지각 경향은 능력(36.7%)이나 개체성 특성(38.3%)의 독특성 지각 경향보다 강했다. 이러한 경향은 두 문화성향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능력을 제외하고, 두 성격 특성과 문화성향 집단만으로 변량분석한 결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 경우에도 특성유형과 문화성향의 상호작용은 매우 유의미하였지만,  $F(1, 66)=27.37, p<.001$ , 문화성향 집단의 주효과는 없었으며,  $F < 1$ , 특성유형의 주효과는 매우 컸다,  $F(1, 66)=11.03, p<.001$ .

표 4. 두 문화성향이 각 특성유형의 독특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n=141$ )

	능력		개체성		배려성	
	$\beta$	$t$	$\beta$	$t$	$\beta$	$t$
개인중심성향	-.35	-4.30***	-.43	-5.55***	-.01	-.19
집단중심성향	-.04	.46	-.03	.43	-.36	-4.29***
$R^2$	.14***		.22***		.16***	

\*\*\*  $p < .001$

이 표에서 보듯이, 대학생 참가자들에게서도 능력과 개체성 영역에서의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은 개인중심성향에 의해 유의미하게 예언되지만, 배려성 영역의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은 집단중심성향에 의해 유의미하게 예언되는 것이다.

### 종합 논의

본 연구의 결과, 고등학생 집단(연구 1)과 대학생 집단(연구 2)에서 모두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능력과 개체성 특성 영역에서의 자기 독특성 추정치는 응답자의 개인중심성향과 유의미한 상관관이 있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배려성 특성 영역에서의 자기 독특성 추정치는 응답자의 집단중심성향과 유의미한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1과 표 3). 따라서 개인주의의 문화 일치 특성인 능력과 개체성 특성에 대한 허구적 독특성 효과는 응답자들의 개인중심성향에 의해 유의미하게 예언될 수 있었으며, 집단주의의 문화 일치 특성인 배려성 특성에 대한 허구적 독특성 효과는 응답자들의 집단중심성향에 의해 유의미하게 예언될 수 있었다(표 2와 표 4). 결과적으로 응답자들을 개인중심성향자와 집단중심성향자로 나누었을 때, 능력과 개체성 특성 영역에서는 대체로 개인중심성향자가 집단중심성향자보다 자기의 독특성을 허구적으로 과대 추정하고 있었으며, 배려성 특성 영역에서는 집단중심성향자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자기의 독특성을 허구적으로 과대 추정하고 있었다(그림 1과 그림 2). 이상의 결과들은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은 개인주의 문화만의 특징이 아니라, 해당 문화에서 중시하는 문화 일치 특성의 평가에서는 어느 문화에서나 나타날 것이라는 본 연구 기본

전제의 경험적 타당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능력과 성격 특성의 영역에 국한하여 허구적 독특성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의 독특성을 과대 지각하는 경향은 능력과 성격 특성에서만 아니라, 자신의 선호나 취향의 독특성을 과대 지각하는 경향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의 판단 경향을 모두 종합하면, 개인주의 사회와 개인중심성향자의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이 집단주의 사회와 집단중심성향자의 그것보다 더 크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도 전체적인 허구적 독특성 효과는 집단중심성향보다는 개인중심성향과 더 큰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표 1과 표 3).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허구적 독특성 효과가 개인주의 사회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주 4 참조), 이러한 점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함의는 허구적 독특성 효과가 어느 한 사회만의 특징이 아니라, 판단되는 특성이나 행동 영역과 문화적 가치의 일치성 여부에 따라 문화적으로 구속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다.

### 연구 결과들의 불일치 문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상호의존적 성향에서조차도 일본 대학생들은 미국(Markus & Kitayama, 1991b)이나 캐나다(Heine & Lehman, 1997) 학생에 비해 스스로를 독특하게 인식하지 않으며, 능력·독립적 성향·상호의존적 성향 등 모든 특성에 대한 판단에서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은 개인주의 문화의 특징일 뿐,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을 확실히 밝힐 수는 없으나, 몇 가지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Markus와 Kitayama(1991b) 및 Heine와 Lehman(1997)의 연구는 문화 간 비교(cross-cultural comparison)의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본 연구는 문화 내적 분석(within-cultural analysis)의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여기

서 문화 간 비교 연구는 서로 다른 두 사회의 성원, 예를 들면 북미의 대학생(개인주의자)과 일본의 대학생(집단주의자)의 동일한 척도나 설문에 대한 평균적인 반응을 비교하는 것이고, 문화 내적 분석 연구는 본고에서와 같이 Triandis와 그 일파들(Bontempo et al., 1990; Singelis et al., 1995; Triandis, 1989, 1990, 1994, 1995; Triandis & Gelfand, 1998; Triandis et al., 1985, 1988, 1990)을 따라 한 사회 내의 성원들을 개인중심성향자(idiocentric)와 집단중심성향자(allocentric)로 나누고, 이들의 반응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sup>7)</sup>

Berry, Poortinga, Segall과 Dasen(1992)은 문화 간 비교 분석의 연구들에서는 측정 도구와 연구 주제 및 개념의 선택과 이론 구성 등의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자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가 끼어들 수 밖에 없다고 보아, 이러한 문화 간 비교 분석의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Markus와 Kitayama(1991a) 및 Fiske 등(1998)도 문화 간 비교 분석의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발견된 문화차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의 곤란성,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므로 이에 대한 친숙도나 선호도의 문화차를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 및 측정 도구나 개념의 번역과 균질화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개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Nisbett 등(2001)은 동아시아와 미국인 피험자들은 동일한 문제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양적인 차이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동일한 문제 상황이라도 문화에 따라 질적으로 서로 다른 인지 과정을 촉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일본인과 미국인 및 일본인과 캐나다인의 동일한 특성에 대한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는 Markus와 Kitayama(1991b) 및 Heine와 Lehman(1997)의 연구도 이들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성 및 개념의 문화 간 동질성의 문제나 연구 방법(내성에 의한 자기 탁월성의 비교 및 보고)에 대한 친숙도의 문화차 문제 등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산출하게 했을 개연성도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이나 캐나다인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인 일본인들과는 달리 개체성이나 배려성과 같은 성격 특성도 능력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국인과 캐나다인들은 개체성이나 배려성도 능력과 같은 차원에서 판단하여 자기의 독특성을 허구적으로 과대 평가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sup>8)</sup>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들에서 자기들의 개인주의 문화와 비교하기 위한 집단주의 문화로 선정된 사회는 일본이었다는 점이다.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는 모두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차이도 많다. 예를 들면, 일본 문화는 고도로 남성적인 문화이지만, 한국 문화는 여성적인 문화이다. Hofstede(1980, 1991/1995)의 문화의 4차원 중 일본은 남성성(masculinity) 지수가 95로 53개 국가 중 1위이고, 한국은 39로 41위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문화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바로 이러한 남성성 지수의 차이에 있다. 즉, 일본은 성공·힘·도전의 숭상 및 물질적 부의 추구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전형적인 남성적 문화이고, 한국은 타협·배려·협동·덕의 숭상 및 자기 성찰과 수양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여성적 문화인 것이다.

Nisbett과 Cohen(1996, Cohen, 2001)에 따르면, 남성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명예를 존중하는 문화

7) Triandis, McCusker, Betancourt, Iwao, Leung, Salazar Setiadi, Sinha, Touzard와 Zaleski(1993)에 의하면, 문화 비교 연구는 문화 간 비교 분석, 문화 내적 분석, 범문화권적 분석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범문화권적 분석은 문화차는 무시하고, 여러 사회에서 얻은 응답자들의 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문화 비교 연구라 보기 힘들다. 이렇게 보면, 문화 비교 연구는 문화 간 비교 분석과 문화 내적 분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최상진과 한규석(2000)은 전자를 비교문화적 방법, 후자를 문화심리학적 비교의 방법이라 부르고, 전자에 비해 후자가 가지는 이론적·효용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필자는 일련의 연구(조근호, 2001; 조근호·김소연, 1998; 조근호·김은진, 2001; 조근호·김지용, 2001; 조근호·명정환, 2001)를 통해 문화 비교 연구에서 문화 내적 비교 분석의 방법이 가지는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8) 이러한 사실은 2002년 2월 3일 頭齋會 모임에서 필자가 발표한 본고의 내용에 대해 이정모 교수(성균관대)가 지적한 논평이다. 이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culture of honor)가 형성되어, 전형적으로 모욕에 대해 참지 못하고 즉각 응전하려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폭력이 많아지고 이에 대해 허용적인 경향이 강하므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상대방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성원들 서로 간에 상대방을 자극하려 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자기의 겸손성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에서는 자기의 독특성을 좀체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南博, 1983/1995; Cohen, 2001). 일본인의 자료에서 어느 영역에서나 허구적 독특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Heine & Lehman, 1997; Markus & Kitayama, 1991b)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연유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또한 일본인들은 한국인보다 상호 독립적 자기관(4.36 : 4.87)과 상호협조적 자기관(4.94 : 5.13)이 모두 낮지만, 특히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더 낮으며,<sup>9)</sup> 따라서 일본인들은 한국인보다 자기에게 벌어질 미래 사건을 타인에게 벌어질 미래 사건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 Taylor & Brown, 1988)이 더 높다는 사실(이누미야 요시유키·최일호·윤덕환·서동효·한성열, 1999)에서도 한국과 일본 자료에서의 위와와 같은 차이의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기의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은 상호협조적 자기관( $r=.00$ )보다는 상호독립적 자기관( $r=.22, p<.01$ )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데(이누미야 요시유키 등, 1999, 표 5), 이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강할수록 자기의 미래를 타인의 미래보다 낙관적으로 인식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더 강하므로, 한국인들은 비현실적 낙관성을 보이지만, 일본인은 그 반대로 개인지향적 사건이나 관계지향적 사건의 경우에 모두 비현실적 비관성(자기의 미래를 타인의 미래보다 비판적으로 보

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낮은 일본인은 자기를 비판적으로(이누미야 요시유키 등, 1999) 또는 비판적으로(Kitayama et al., 1997)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기의 독특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한국인은 상호협조적 자기관 뿐만 아니라 상호독립적 자기관도 높기 때문에 문화 일치 특성에 대한 자기의 독특성을 과장하여 지각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북미와 일본에서의 문화 내적 분석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즉,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각각 개인중심성향자와 집단중심성향자를 선별하고, 각 사회 내에서 이 두 집단의 제반 특성에 대한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가 얻어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 문화와 자기 존중감의 근원

서구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예: Heine & Lehman, 1997; Markus & Kitayama, 1991b)에서 밝혀려 했던, 자기의 탁월성을 과장하는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이 개인주의 문화에서만 나타난다는 생각의 배경에는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통한 자기존중감은 개인주의 문화의 특징일 뿐이라는 견해가 깔려 있다(Kunda, 2000; Matsumoto, 2000). 실제로 Baumeister, Tice와 Hutton(1989)은 서구에서 이루어진 자기존중감 연구들을 개관하여, 이들 연구에서는 사용된 척도에 상관없이 서구인들의 자기존중감의 평균 또는 중앙치가 이론적 중간점보다 상위에 편포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Heine 등(1999)에 따르면, Rosenberg(1965)의 자기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 점수들의 사후 종합 분석(meta-analysis)에서 유럽계 캐나다인은 이론적 중간점보다 상위에 편포하며, 중간점 이하인 사람은 7% 미만임에 비해(Heine et al., 1999, 그림 1, p. 776), 일본인의 사후 종합 분석에서는 이론적 중간점을 중심으로 정상분포하고 있다(그림 2, p. 777). 이러한 결과는 Diener와 Diener(1995)의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중대한 실제적 및 이론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적인 자기 평가의 욕구가 과연 개인주의

9) 이누미야 요시유키·최일호·윤덕환·서동효·한성열(1999)은 Markus와 Kitayama(1991a)가 각각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의 자기관으로 제시한 independent self와 interdependent self를 상호독립적 자기와 상호협조적 자기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p. 183, 주 1 참조), 이 두 자기관을 측정하는 척도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여 이러한 결과를 얻고 있다.

사회에서만 작용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James(1890) 이래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정적 자기 평가를 위한 욕구가 인간의 가장 강력하고도 보편적인 동기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Brown, 1998; Heine et al., 1999; Matsumoto, 2000).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인주의 사회일수록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다(Baumeister et al., 1989; Diener & Diener, 1995; Heine et al., 1999)는 결과들은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서구의 개인주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측면을 더 잘 반영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된 척도는 Rosenberg(1965)의 10문항짜리 자기존중감 척도(SES)인데, 이는 대체로 “나는 내가 좋은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최소한 남들과 같은 기준에서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과 같이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적극적인 자기주장 및 자기고양적 편향(조공호, 1993, 1996, 1997, 1999, 2000;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a, b; Triandis, 1989, 1990, 1995 등)의 측면을 드러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기억제를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Heine et al., 1999).<sup>10)</sup> 따라서 집단주의자들의 자기존중감 수준이 개인주의자들보다 낮은 것은 사용된 척도의 편파성에 기인한 것이지, 사실을 반영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자기존중감 수준의 문화차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서론에서 제시하였듯이, 자기존중감의 근원이 문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다. 사회 행위의 원동력을 개인의 능력·성격·욕구 등 내적 특성에서 찾으므로써, 이들을 완비한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고 중시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내적 특성의 확인과 적극적 표현 등 자기 독특성의 추구가 자기존중감의 근거가 된다. 이에 비해 사회 행위의 원동력을 관계 속의 역할·의무·배려 등 상황 특성에서 찾으므로써, 상호의존성과 연계성 및 조화를 추구하고 중시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조정과 억제 및 사회 맥락과의 조화의 유지가 자기존중감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Bandura, 1997; Fiske et al., 1998; Heine et al., 1999; Kitayama et al., 1997; Kunda, 2000; Markus & Kitayama, 1991a, 1994a; Matsumoto, 2000).

이러한 사실은 미국인에게 있어서는 주관적 안녕감(sense of subjective well-being)이 자부심 및 성취감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지만,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안녕감은 자부심이나 성취감과 무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수용감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Heine & Lehman, 1995). 또한 Kitayama, Markus, Kurokawa와 Negishi(1993)에 따르면, 미국인에게 있어 전반적인 행복감은 동정심·존경감 등 사회몰입정서(socially engaged emotion)보다는( $r=.35$ ) 자부심·우월감 등 사회유리정서(socially disengaged emotion)와 더 높은 상관이 있지만( $r=.53$ ), 일본인에게 있어 행복감은 사회유리정서( $r=.20$ )보다는 사회몰입정서( $r=.58$ )와 더 상관이 높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자기존중감의 근원은 개인으로서 유능하다는 개인효능감(personal efficacy)이라면,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자기존중감의 근원은 소속감과 조화감에서 나오는 집단효능감(group efficacy)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Bandura, 1997). 즉, 본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개체성 등 개인주의 문화 일치 특성의 탁월성 지각이 자기존중감의 근원이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배려성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 일치 특성의 탁월성 지각이 자기존중감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sup>11)</sup>

10) Heine와 Lehman(1997)은 유럽계 캐나다인, 아시아계 캐나다인, 일본인의 세 집단에서 Rosenberg(1965)의 SES와 Singelis(1994)의 독립성/상호의존성 척도(Independence/Interdependence Scale) 간의 상관관계를 내어 본 결과, SES와 독립성(개인주의적 가치) 간에는 세 집단 모두 유의미한( $p<.001$ )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나(각각  $r=.42, .43, .33$ ), SES와 상호의존성(집단주의적 가치)간에는 부적 상관(각각  $r=-.18, p<.001$ ;  $r=-.14, p<.01$ ;  $r=-.08, p>.05$ )을 보이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는 Rosenberg(1965)의 SES가 개인주의적 가치를 민감하게 반영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11) 이러한 배경에서 Fiske 등(1999)은 “자기와 관련된 좋은 느낌의 근원은 문화에 따라 아주 달라서, 이를 자기존중감이라고 불러야 할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p. 930)고 보고 있으며, Markus와 Kitayama(1991a)는 “자기존중이란 일차적으로 서구의 현상으로, 자기존중감의 개념은 자기만족(self-satisfaction) 또는 문화적 명예의 충족을 반영할 수 있는 (좀 더 중립적인) 용어로 대체”(p. 230)될

문화 일치 특성의 우월성 가설과 정교화 가설

필자는 앞선 논문(조공호, 1993)에서 문화유형에 따른 타인 이해 양상의 차이를 대인평가 특성의 우월성 가설과 대인평가 결과의 정교화 가설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우월성 가설은 서로 다른 문화적 조망에 따라 대인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탐색되는 특성(우월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의 달성이라는 문화적 명제에 일치하는 독특성·자기주장성·일관성 등의 특성이 우월특성이 되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상호의존성과 연결성의 달성이라는 문화적 명제에 일치하는 배려성·자기억제성·상황가변성 등의 특성이 우월특성이 된다. 정교화 가설은 이렇게 문화에 따라 중시되는 우월특성과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는 부차특성에 대한 인상평가가 결과의 차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문화적 조망에 따라 탐색되는 우월특성의 인물에 대해서는 더 극단적이고 정교화된 인상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문화 일치 특성으로 구성된 인물에 대한 인상평가는 그렇지 않은 특성으로 구성된 인물에 대한 인상평가에 비해 더 정적 또는 부적으로 분화되어 정교화된 인상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설은 문화 비교 연구의 배경이 되고 있는 문화구성주의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다. 문화구성주의는 문화와 개인의 심성 체계가 상호 구성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Fiske et al., 1998; Gergen & Davis, 1985; Gergen & Gergen, 1988; Harré, 1988; Heine & Lehman, 1997; Heine et al., 1999; Kitayama et al., 1995, 1997; Markus & Kitayama, 1994a, b; Nightingale & Cromby, 1999). 즉, 사회는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기관(독립적 자기관 또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에 일치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산출해 내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압력을 통해 성원들이 이에 합치되는 자기관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 해당 문화의 문화적 자기관에 조율된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Heine 등 (1999)은 개인주의 사회 뿐만 아니라 집단주의 사회의 정적 자기 평가 또는 자기존중감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하다면서, 집단주의자들의 자기 평가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존중감과 대조되는 관계 존중감(relationship esteem)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심리 내용과 경향을 갖추게 된 성원들은 이러한 문화적 자기관에 부합되는 행동과 신념 체계를 통해 해당 문화의 자기관에 합치되는 상황을 조성하므로써, 문화의 조형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구성주의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상황의 특징과 개인의 심리 과정 사이의 밀접한 상용관계를 전제하므로써, 개인의 심리 기제의 문화적 근거를 밝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자기관에 조율된 심리 과정이 곧 문화유형에 따른 대인평가 특성의 우월성 가설과 대인평가의 정교화 가설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문화적 자기관에 조율된 이러한 심리 과정은 대인평가의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자기 평가의 과정에서도 작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자기 평가의 과정에서도 문화 일치 특성(우월특성)이 적극적으로 탐색되고(우월성 가설), 이러한 우월특성은 자기 독특성 지각의 근거로 작용하므로써(정교화 가설), 결국 이러한 문화 일치 우월특성에 대해 허구적으로 과장된 독특성 지각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문화 일치 특성에 대한 탐색과 이에 대한 평가 및 판단 과정에 관한 이러한 우월성 가설과 정교화 가설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문화차 관련 현상들을 다시 검토하는 개념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근본적 귀인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고 알려진 성향귀인 경향(Ross, 1977)은 개인주의 사회의 특징일 뿐,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상황귀인으로 나타난다는 사실(Choi & Nisbett, 1998; 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Fiske et al., 1998; Miller, 1984; Miller & Bersoff, 1992; Morris & Peng, 1994; 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 등)도 이러한 두 가설에 비추어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 항상 이러한 귀인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문화 일치 우월특성인 상호의존성·배려성 특성이 반영되는 행동의 귀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문화 비교 연구에서는 비교되는 특정 문화들에 대한 고정관념식 이해에서 벗어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즉, 어떤 현상(예: 허구적 독특성 효과·근본적 귀인 오류 등)은 특정 문화(예: 개인주의 문화)에서만 나타나고, 대립적인 다른 문화(예: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해는 그 자체 문화결정주의의 오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문화 체계와 인간의 심성 체계는 상호 구성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지, 어느 하나에 의해 나머지가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본고에서 검토한 우월성 가설과 정교화 가설은 문화 비교 연구 장면에서 그 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문화차 관련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 내적 비교 연구의 방법

여기서 마지막으로 고찰해 볼 것은 이러한 문화구성주의에서 도출되는 두 가설-우월성 가설과 정교화 가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화성향의 개인차를 통한 개인차 연구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도 한 문화권 내의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 관련 행동 또는 심리적 특징을 비교하는 문화 내적 비교 연구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조궁호·명정완, 2001; 조궁호·김소연, 1998; 조궁호·김은진, 2001)은 문화 간 비교 분석의 연구들이 가지기 쉬운 결함(Berry et al., 1992; Fiske et al., 1998; Markus & Kitayama, 1991a; Nisbett et al., 2001; Triandis, 1994; Triandis et al., 1993 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개인차 연구로서 이것이 문화 연구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두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 현상과의 실제적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물론 본고에서 측정된 개인중심성향과 집단중심성향은 각각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적인 자의식 유형인 사적 자의식 및 공적 자의식과 밀접한 상관이 있으며, 두 문화성향을 기초로 선별된 개인중심성향자와 집단중심성향자들은 두 자의식 유형에서 예측한 바대로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조궁호·명정완, 2001). 이러한 사실은 본고에서 사용한 연

구 방법의 문화 연구로서의 가치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차 연구인 이러한 방법 이외에 문화차를 연구하는 문화 내적 비교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가 얻어지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우리 문화권 내에서 개인중심성향이 비교적 강한 청소년과 집단중심성향이 비교적 강한 성인 집단(김의철, 1997; 차재호·정지원, 1993; 한규석, 1995; 한규석·신수진, 1999)을 비교하는 연령차 분석 연구와 개인중심성향이 비교적 강한 대도시와 집단중심성향이 비교적 강한 농·어촌(장성수·이수원·정진곤, 1990)을 비교하는 지역차 분석 연구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도 역시 유사실험 방법(quasi-experimental method)의 일종으로, 이보다는 문화에 대한 엄밀한 실험적 연구에 의해 이 연구의 결과들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Hong과 그 동료들(Chiu, Morris, Hong, & Menon, 2001; Hong, Chiu, & Kung, 1997; Hong, Morris, Chiu, & Benet-Martínez, 2000)은 역동적 구성주의 접근(dynamic constructionist approach)의 입장에서 점화 효과(priming effect)의 연구 방법을 응용한 문화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두 문화적 조망을 공유하고 있는 연구 참가자(bicultural participants, 예: 홍콩의 대학생)들에게 미국 상징물(American icons)과 중국 상징물(Chinese icons)을 제시함으로써 각각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의 개념 구조를 점화시키고 난 후, 제시된 자극 행동에 대해 귀인하도록 하면, 후자가 전자보다 더 상황 귀인을 강하게 함을 밝혀, 귀인의 문화차에 관한 문화 간 비교 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점화의 방법이 문화가 갖는 인과적 역할을 명백히 하므로써 문화 간 비교의 연구 결과들을 보완해 주고 있다”고 보므로써, 이러한 “점화 실험은 기존의 문화 연구 방법들을 능가하는 장점을 갖는 문화 연구의 새로운 도구”(Hong et al., 2000, p. 717)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화 방법은 이미 이수원·이현남(1993) 및 Choi, Dalal, Kim-Prieto와 Park(2001)에 의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적용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타 문화권과의 비교 연구와 함께 상기한 두 가지 문화 내적 비교

연구(우리 문화 내에서의 연령차·지역차 연구 및 점화 방법에 의한 실험 연구)의 결과들에 의해 재검되어, 같은 결과로 수렴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 집단 구별: 문화 비교 분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김의철 (1997). 한국 청소년의 가치체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 청소년 문화: 심리-사회적 형성 요인.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지용 (2002). 문화성향과 자의식, 공감, 허구적 독특성 및 동조행동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 南 博 (1983). 日本的自我 東京: 岩波書店. (서정완 역, 일본적 자아. 서울: 소화, 1995.)
- 이누미야 요시유키·최일호·윤덕환·서동효·한성열 (1999).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에 있어서의 비교 문화 연구: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83-201.
- 이수원·이현남 (1993). 한국인의 인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 편, 한국인의 특성: 심리학적 탐색 (1993년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pp. 63-79).
- 장성수·이수원·정진곤 (1990).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분배정의에 관한 연구: 공정 조망과 인정조망을 중심으로 교육논총(한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3, 217-265.
- 조금호 (1993).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대인평가 이원 모형의 확대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4-149.
- 조금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04-139.
- 조금호 (1997). 문화유형과 정서의 차이: 한국인의 정서 이해를 위한 시론. 심리과학(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6(2), 1-43.
- 조금호 (1999). 문화유형에 따른 동기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33-273.
- 조금호 (2000). 문화유형과 동기의 차이: 한국인의 동기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83-122.
- 조금호 (2001) 문화성향과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한국심리학회 편, 2001년도 연차 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pp. 265-273).
- 조금호·김소연 (1998). 경양편향자의 선호 현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169-189.
- 조금호·김은진 (2001). 문화성향과 동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39-165.
- 조금호·김지용 (2001). 문화성향, 자의식의 유형 및 공감수준.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편, 2001년도 동계 학술대회 논문집 (pp. 33-40).
- 조금호·명정안 (2001). 문화성향과 자의식의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11-139.
- 차재호·정지원 (1993).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50-163.
- 최상진·한규석 (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23-144.
- 한규석 (1991).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32-155.
- 한규석·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 가치 변화: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umeister, R. F., Tice, D. M., & Hutton, D. G. (1989).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s and personality differences in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57, 547-579.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nd, M. H., & Forgas, J. P. (1984). Linking person perception to behavior intention across cultures: The role of cultural collectivism. *Journal of*



- Cross-Cultural Psychology*, 15, 337-352.
- Bond, M. H., & Hwang, K. K. (1986). The social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In M. H. Bond (Ed.), *The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pp. 213-26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ontempo, R., Lobel, S. A., & Triandis, H. (1990). Compliance and value internalization in Brazil and the U. S.: Effects of allocentrism and anonym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200-213.
- Brown, J. D. (1986) Evaluation of self and others: Self-enhancement biases in social judgement. *Social Cognition*, 4, 353-376.
- Brown, J. D. (1998). *The self*. Boston, MA: McGraw-Hill.
- Chiu, C. Y., Morris, M. W., Hong, Y. Y., & Menon, T. (2000). Motivated cultural cognition: The impact of implicit cultural theories on dispositional attribution varies as a function of need for 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247-259.
- Choi, I., Dalal, R., Kim-Prieto, C., & Park, H. (2001). *Culture and judgment of causal relevance: Inclusion versus exclusion*. Unpublished manuscrip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I., & Nisbett, R. E. (1998). Situational salience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rrespondence bias and actor-observer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949-960.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A. (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 47-63.
- Cohen, D. (2001). Cultural variation: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27, 451-471.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F.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T. Gil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 915-981). Boston, MA: McGraw-Hill.
- Gergen, K. J., & Davis, K. E. (Eds.) (1985).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 New York: Springer-Verlag.
- Gergen, K. J., & Gergen, M. M. (1988). Narrative and the self as relationship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1, pp. 17-56). New York: Academic Press.
- Harré, R. (Ed.) (1988). *The social construction of emotion*. New York: Basil Blackwell.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Heine, S. J., & Lehman, D. R. (1997).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enhancement: An examination of group-serving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68-1283.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766-794.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 학지사, 1995.)
- Hong, Y. Y., Chiu, C. Y., & Kung, T. M. (1997). Bringing culture out in front: Effects of cultural meaning system activation on social cognition.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 1, pp. 139-150). Singapore: Wiley.
- Hong, Y. Y., Morris, M. W., Chiu, C. Y., & Benet-Martínez, V. (2000). Multicultural minds: A dynamic constructivist approach to culture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709-720.
-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Kernis, M. H. (1984). Need for uniqueness, self-schemas, and thought as moderators of the false-consensus effec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350-362.
- Kim, K., & Kim, U. (1997). Conflict, ingroup and outgroup distinction and mediation: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 1, pp. 247-259). Singapore: Wiley.
- Kitayama, S., & Markus, H. R. (1995). Construal of self as cultural frame: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izing psychology. In N. R. Goldberger & J. B. Veroff (Eds.), *The culture and psychology reader* (pp. 366-383).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Kitayama, S., Markus, H. R., Kurokawa, M., & Negishi, K. (1993). *Social orientation of emotions: Cross-cultural evidence and implication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Oregon.
- Kitayama, S., Markus, H. R., & Lieberman, C. (1995). The collective construction of self-esteem: Implications for culture, self and emotion. In J. Russel, J. Fernandez-Dois, T. Manstead, & J. Wellenkamp (Eds.), *Everyday conceptions of emotion: An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anthropology, and linguistics of emotions* (pp. 523-550). Dordrecht,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of self-esteem management: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Kunda, Z. (2000).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 MIT Press.
- Maehr, M., & Nicholls, J. (1980). Culture and achievement motivation: A second look. In N. Warren (Ed.), *Studi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2, pp. 221-267). New York: Academic Press.
- Marks, G. (1984). Thinking one's abilities are unique and one's opinions are comm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 203-208.
- Markus, H. R., & Kitayama, S. (1991a).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1991b).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 (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New York: Springer-Verlag.
- Markus, H. R., & Kitayama, S. (1994a). A collective fear of the collective: Implications for selves and theories of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68-579.
- Markus, H. R., & Kitayama, S. (1994b).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 and emotion: Implications for social behavior. In S. Kitayama & H. R. Markus (Eds.),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investigation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rkus, H. R., Mullally, P. R., & Kitayama, S.

- (1997). Self-ways: Diversity in modes of cultural participation. In U. Neisser & D. Jopling (Eds.), *The conceptual self in context* (pp. 13-61).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sumoto, D. (2000). *Culture and psychology: People around the world* (2nd ed.). Belmont, CA: Wadsworth/Thompson Learning.
- Miller, J. G.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Miller, J. G., & Bersoff, D. M. (1992). Cultural and moral judgment: How are conflicts between justi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ies resol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541-554.
- Morris, M. 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949-971.
- Mullen, B., & Riordan, C. A. (1988). Self-serving attributions in naturalistic setting: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8, 3-22.
- Myers, D. (1987). *Social psycholog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Nightingale, D. J., & Cromby, J. (Eds.) (1999). *Social constructionist psychology: A critical analysis of theory and practice*. Philadelphia, PA: Open University Press.
- Nisbett, R. E., & Cohen, D. (1996). *Culture of honor: The psychology of violence in the South*. Boulder, CO: Westview.
-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 291-31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s, L. (1977). The intuitive psychologist and his shortcomings: Distortions in the attribution proces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0, pp. 174-220). New York: Academic Press.
- Sampson, E. E. (1977). Psychology and the American ide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762-782.
- Sampson, E. E. (1989). The challenge of social change for psychology: Globalization and psychology's theory of the person. *American Psychologist*, 44, 914-921.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D., & Gelfand, M.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nyder, C. R., & Fromkin, H. L. (1980). *Uniqueness: The human pursuit of difference*. New York: Plenum.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esser, A. (1988). Toward a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of social behavior.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1, pp. 181-227).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

-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pp. 41-133). Lincoln, N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 C. (1994).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41-51). Thousand Oaks, CA: Sage.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 Clark, F. L. (1985). Allocentric vs. idi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Triandis, H. C., McCusker, C., Betancourt, H., Iwao, S., Leung, K., Salazar, J. M., Setiadi, B., Sinha, J. B., Touzard, H., & Zalaski, Z. (1993). An etic-emic analysi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 366-383.
- Triandis, H. C., McCusker, C., & Hui, C. 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6-1020.
- Weldon, E. (1984). Deindividuation, interpersonal affect and productivity in laboratory task grou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4*, 469-485.
- Yang, K. S. (1986). Chinese personality and its change. In M. H. Bond (Ed.), *The psychology of the Chinese people* (pp. 106-17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ultural Dispositions and False Uniqueness Effects

Geung-Ho Cho

Sogang University

In some cross-cultural researches(Heine & Lehman, 1997; Markus & Kitayama, 1991b), it was found that American and Canadian students (individualists) display significantly more false uniqueness than Japanese (collectivists) even on attributes of interdependence (which are regarded as predominantly important in collectivistic culture) not only on attributes of abilities and independence (which are regarded as predominantly important in individualistic culture). In general, cultural difference in the self-uniqueness evaluation like this has been taken as a reliable and valid fact. However, inconsistent results with these previous ones were got in the present study. In this study, the Korean high school students (Study 1) and college students (Study 2)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idiocentrics and allocentrics, and evaluated his/her superiority on abilities, independent traits, and interdependent traits compared with other students of same age and sex.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s: In the evaluation of one's superiority on abilities and independent traits, idiocentrics show significantly more false uniqueness than allocentrics, while allocentrics show great more false uniqueness on interdependent traits than idiocentric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elf-esteem may indeed be deriving from the feeling that one is successfully performing the cultural imperatives. For individualists, this means separating/standing out and being different from others on various abilities and independent traits. For collectivists, it may mean trying to connect - to be sympathetic and concerned with others.

**Keywords: cultural disposition, false uniqueness, self-esteem, cultural constructionism, cultural correspondence of Traits, salience hypothesis, elaboration hypothesis**

원고 접수: 2002년 1월 10일

심사 통과: 2002년 2월 2일